

유제품 원자재價 2년간 상승

유제품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향후 2년동안 상승할 전망이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분유 등의 재료비용 상승에 따라 유제품 가격은 상승세에 있다가 장기적으로는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지 분유 생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분유가격은 2008년에 최고가인 100kg당 263달러를 경신하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수준으로 하락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분유의 평균가격은 100kg당 251달러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쇠고기 대형매장 시판 빈축

전국 대형유통업체 매장에서 일제히 미산 쇠고기가 시판된 것과 관련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과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7월 13일 롯데마트가 전국 53개 매장에서 미산 쇠고기 판매에 돌입함에 따라 주요 4개 매장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매장을 점거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감시단과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함에 따라 중단됐던 수입이 한·미 FTA 강행추진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안전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채 재개됐다"며 "비윤리적 상행위에 대해 팔지도 사지도 먹지도 않는 3주운동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쇠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흰 우유소비 감소 '이상 신호'

연초 호조를 보였던 흰 우유 소비가 성수기인 4월과 5월에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 찾아온 더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홍보

및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유가공협회가 조사한 10개 회원사의 4월과 5월 흰 우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 2.8%가 떨어졌다. 그나마 가공우유는 4월 0.3% 반짝 오르는 듯 했으나 5월 다시 0.3%가 떨어져 5월까지의 누계 우유소비실적은 지난해보다 0.1%가 빠졌다. 최근 동원 등 신생업체의 유가공시장 진출로 덩주기가 더욱 담대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시유 소비 2003년 이후 지속 감소

음용 우유 소비가 지난 2003년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낙농진흥회가 집계한 유제품 소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유제품을 포함한 총 유제품 소비량은 307만140톤으로 전년대비 4만1천853톤이 늘어났으나, 백색시유와 가공시유 등 음용유 소비량은 168만3천582톤으로 전년대비 7천6백17톤이 줄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63.6kg으로 전년보다 늘었으나 1인당 음용유 소비량은 34.9kg으로 지난 2003년 38.2kg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음용유 소비의 이 같은 감소세는 백색시유보다 가공시유 소비가 크게 줄어든 때문인데 지난해의 경우 백색시유 소비는 134만3천727톤으로 전년보다 2.5% 늘었으나, 가공시유는 33만9천8백55톤으로 전년대비 89.4%에 머물렀다.

한우 FTA 약재에도 고가행진

올 상반기 가격 하락이 점쳐졌던 것과는 달리 한우의 고가 행진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한 다양한 원인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산지가격은 암소 600kg의 경우 477만원, 수소는 479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송아지의 경우 암컷 225만원, 수소 217만원에 거래가격이 형성됐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다소 떨어진 수준이지만 한미

●● 농축산소식

FTA와 맞물린 미국의 쇠고기 수입압박이라는 악재가 있었고, 사육두수 200만두를 넘어선 것 등을 고려하면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는 선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시세의 유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한우 저가 판매장 급부상

한우협회 관계자는 “올 초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300㎡이상 영업장에 대해 의무화됐고,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유통감시단의 활동이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한우판매량을 촉진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며 “메스컴을 통해 국내 쇠고기 유통구조의 취약점이 부각된 것도 둔갑판매를 차단하고 한우소비를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우가격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등급이 낮은 비거세우의 가격이 높다는 것. 농협축산물공판장의 20일 기준 2등급 비거세우의 경락가격은 14,728원/kg으로 같은 등급의 거세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았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유무상 서울지역본부장은 이에 대해 “단체급식에서 한우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면서 육질보다는 육량위주의 선택을 하고 이들로 인해 물량이 부족한 비거세우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하며 “같은 등급의 거세우와 비거세우를 비교해보면 거세우의 작업이 용이하고 육량이 많기 이를 더욱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비거세우는 1등급 이상의 고급육 출현율이 낮아 농가 입장에서는 거세고급육을 생산해 차별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낙농자조금 TV광고 ‘新춘향전’, 이달의 베스트 선정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TV 광고 ‘新춘향전’이 ‘이달의 좋은 광고’로 선정 됐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최근 텔러트 이영은씨가 출연한 우유광고가 참신한 크리에이티브와 함께 공익성을 인정 받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이달의 좋은 광고’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춘향전’에 반전을 가해 1318 청소년 세대에게 우유에 대한 흥미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TV 광고의 주 타깃은 청소년인만큼 친근한 우유이미지를 심어 주고 재미까지 더해 우유소비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셀라 보상금 60% 다시 도마위에

한우 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 60%가 농가에는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한우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채를 안고 있는 농장이 브루셀라에 감염될 경우 보상금 60%로는 더 이상 농장 경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농장에 브루셀라 발생은 곧 농장이 문을 닫아야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양축가가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브루셀라는 점점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추게 됨으로써 브루셀라 근절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브루셀라 검사는 11만6천449농가에 56만1천642두다. 이 가운데 양성은 1천41농가 5천835두로 1.04%다. 농림부는 양성비율이 0.5%이하로 떨어지면 보상금을 80%로 회복하고, 5%를 넘어갈 시 백신접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농가별 분산설치 검토

정부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각 축산농가에 나눠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이상철 과장은 최근 전국 의 액비유통센터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가축분뇨를 한곳에 모아 처리할 경우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따른 부지확보난으로 인해 공동자원화 시설의 설치 추진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말(馬)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안내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강춘성)에서는 농림부의 지원으로 「말산업전문가양성과정」교육을 오는 8월 21일(화)부터 9월 20일(목)까지 매주 2박 3일씩(화,수,

목), 5주간 농업기술진흥관(용산구 이촌동 소재) 및 승마장 등 현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말을 이용한 관광, 레저, 스포츠, 서비스, 복지 등 다양한 방향으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말사양관리, 승마기술 체득 등의 교육을 통하여 말을 이용한 각종 사업모색과 도농교류(그린투어리즘)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미래형 축산업으로써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 위해 이론과 실습·견학을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실시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8월 13일(월)까지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로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라이프뉴스)

체험 · 관광 · 레저 시대에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말(馬)산업 전문가양성과정] 교육 안내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강춘성)에서는 농림부의 지원으로 「말(馬)산업전문가양성과정」교육을 실시합니다. 말교육은 2001년부터 실시해온 말전문가 양성교육으로써 “말을 이용한 관광, 레저, 스포츠, 서비스, 복지 등 다양한 방향으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말사양관리, 승마기술 체득 등의 교육을 통하여 말을 이용한 각종 사업모색과 도농교류(그린투어리즘)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미래형 축산업으로써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견학을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실시합니다.

◆ 기간

○ 2007년 8월 21일(화) ~ 9월 20일(목)
(매주 화, 수, 목 2박 3일씩 총5주 교육/합숙교육)

◆ 장소 및 방법

○ 농업기술진흥관(서울 용산구 이촌동)/경기도내 승마장, 사육장, 종마장, 마사회 등

◆ 대상 및 신청

○ 말에 관심있는 누구나(25명 선착순 접수)
○ 전화, 팩스, E-mail 로 8월 13일(월)까지 신청 후교육비 입금(농협,067-01-224657/전국농업기술자협회)
* 자세한 사항은 전화 연락 또는 협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람

◆ 교육비

○ 1인당 50만원(숙식비, 실습·견학비, 교재비 등 포함)

◆ 내 용

○ 이론 : 말산업 제도와 발전방향, 품종 및 도입, 걸음 걸이 이해, 발굽관리요령, 말의 특성, 사양관리, 질병 관리, 마사관리, 말의 영양관리 및 소화생리, 수정, 임신, 분만 및 혈통관리, 마구장비사용요령, 농촌형 승마장개발 및 경영, 승마장 운영사례 등

○ 실습 : 말 붙잡기, 고정법 및 말끌기, 피모·갈기 관리, 발굽손질, 마방굴레·안장 탈부착, 승마대화법, 순치, 조마삭, 기승훈련, 평보, 경보, 속보 등

○ 견학 : 말사육장, 종마장, 승마체험농장, 꽃마차운영장, 말테마파크, 마사회 등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 농림부

전화 : 02-794-7270 / 팩스 : 02-792-6972 / mail : kafa794@chol.com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 www.kafarmer.or.kr